

## 제2차 한-UNDP 정책협의회 결과

〈 2007.10.25 〉

우리 정부는 다자지원을 통한 국제사회의 MDGs 달성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UNDP와의 공동협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. 이는 선진 원조 기법을 습득하고 적격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우리의 원조 visibility 제고 및 노력을 홍보하는 역할도 한다.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07년 10월 25일 뉴욕에서 열린 제2차 한국-UNDP 정책협의회 결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. [ 정리 : 정책연구실 ]

### I. 핵심 요지

로 각각 50%의 재원이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

- 한국과 UNDP측은 2006년 4월 “한-UNDP 기본협력협정” 체결 이후 1천만불 규모의 공동협력사업 추진, 한국의 UNDP 집행이사국 진출 등으로 인해 한-UNDP간 협력기반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함
- 양측은 현재 진행중인 3개 공동협력사업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사업의 기본 추진방향에 대해 협의함
  - 특히 우리측은 향후 UNDP와의 협력사업을 빈곤퇴치 및 HIV/AIDS 분야에 집중하되,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최빈개도국을 중심으로 각각 50%의 재원이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
- 우리측은 최근 우리의 ODA 정책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중장기 ODA 정책방향을 설명하고, UNDP측은 UN system-wide coherence 논의를 중심으로 개발분야 UN의 개혁방향과 특히 UNDP의 역할과 최근 성과를 설명함
- 우리측은 2008년 UNDP에 대한 자발적 기여금을 3백만불로 증액하고 2009년 이후에는 추가적인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한바, UNDP 측은 한국이 경제규모에 걸맞는 기여

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사의를 표명

## II. 상세 내용

### 1. 한국의 ODA 정책

- 한국대표는 우리 정부의 ODA 중기지원전략과 최근 정책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ODA 정책을 설명함
  - 한국은 GNI 대비 ODA 규모를 2009년까지 0.1%, 2015년까지 0.25%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항공권연대기여금 도입 등 개발재원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2010년 OECD/DAC 가입추진, ODA 정책문서 채택 추진 등 원조효과성 증대를 시스템 개선 노력을 설명
  - 특히 금년 8월 외교부내에 개발협력국을 신설하고 국내에 다자개발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따로 두는 등 ODA 관련 조직 강화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언급
- 이에 대해 Jenks 국장은 한국은 country-level에서 이미 여타 국제개발기구 및 공여국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공여국으로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으며, 특히 항공권연대기여금 도입은 개발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강한 commitment를 보여주는 획기적인 성과라고 평가함

### 2. UN 개발논의와 UNDP

- Jenks 국장은 개발 어젠다를 중심으로 UN 개혁논의의 주요 쟁점과, System-wide Coherence 논의와 관련하여 UNDP가 “Delivering as One” 시스템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에 관한 UNDP의 역할과 목표, 그간의 성과와 당면 과제 등을 언급함
    - UN 시스템을 통해 확보되는 개발재원은 매년 약 150억불에 불과하며 이는 개발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측면에서 볼때 지나치게 작은 액수로, UN 개혁 필요성의 출발점 중의 하나
    - 특히 현재 8개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“Delivering as One” 시스템의 성과가 향후 System-wide Coherence 논의 진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것이며, 현재까지는 탄자니아, 모잠비크, 르완다에서 동 시스템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
  - 또한 UNDP는 MDGs 달성 이행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, 특히 금년 6월 유엔 사무총장이 “아프리카 MDG Steering Group”을 출범시키면서 UNDP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었다고 설명함
- ### 3. 한-UNDP 협력사업 평가
- UNDP측은 2007년 시작된 3개 공동협력사업

(아프리카 무역역량배양사업, 몽골 MDGs 감시시스템 구축사업, 아시아 반부패 능력배양사업)의 진행경과를 설명함

- 몽골사업과 아프리카 무역역량배양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, 특히 무역역량배양사업의 경우 사업의 일부로 포함된 KOICA 초청연수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매우 커서 이 분야에서의 사업규모 확대를 요청

- 반면 아시아 반부패 능력배양사업의 경우 당초 4개국(부탄, 몽골, 베트남, PNG)을 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부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미진행

■ 이에 대해 우리측은 아프리카 무역역량사업에 대한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금년말까지 제출하는 경우 동 사업규모 확대를 긍정 검토하겠다고 언급함. 아울러 아시아 반부패사업 성과가 부진함을 지적하고 필요시 사업대상국가수 축소 및 국가당 지원규모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진행 필요성을 언급함

- 이에 대해 UNDP측은 거버넌스 관련 사업의 특성상 신속한 사업진행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고 11월중 Steering Committee를 개최하여 동 사업 추진상의 문제를 협의하고 동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우리측에 전달,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

■ 우리측은 현재 지원요청이 접수된 2개 사업(아프리카 거버넌스 사업, 아프리카 HIV/AIDS 사업)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우리측은 나이지리아와 콩고(공) 사무소가 제출한 HIV/AIDS 사업에 보다 관심이 있다고 언급하고,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(Project Document)를 조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

■ 우리측은 또한 그간 UNDP와의 공동협력사업이 분야와 대상국가 관한 특별한 기준 없이 산발적으로 선정되어 왔으나 향후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우리측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을 제안하여 줄 것을 요청함

- 사업분야는 UNDP의 중점지원분야와 우리의 지원필요를 종합 고려하여 빈곤퇴치 및 HIV/AIDS를 선정

- 대상국가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최빈개도국을 중심으로 하되 각 지역별로 약 50 대 50으로 재원이 배분되기를 희망

- 각 사업당 규모는 약 2백만불로 설정하되, 한-UNDP간 사업비용 분담원칙을 감안하여 UNDP측 재원분담 부분을 명기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기를 희망

■ UNDP측은 우리측이 제안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언급함

[자료: 주국제연합대표부]

#### 4. 향후 협력사업 추진 방향